

슈팅 10 vs 5...광주FC '아쉬운 무승부'

김포FC와 득점없이 비겨
최근 4경기 3무 1패 무승
대전과 승점 9점 차 선두



광주FC가 김포FC와 득점없이 비졌다. 최근 4경기에서 3무 1패로 승리가 없는 광주는 승점 1만을 더하며 선두(승점 47·14승 5무 3패)를 지켰다.

광주는 지난 2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24라운드 김포와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라운드 경남에 1-4로 패하며 6라운드부터 이어진 무패행진이 15경기(11승 4무)에서 멈춘 광주는 전열을 재정비, 김포를 상대했다. 2위 대전이 부천에 0-2로 지면서 승리하면 승점을 10점차 이상으로 벌일 수 있는 기회였다.

경기력은 광주가 압도했다. 볼 점유율은 69%였고 슈팅도 10개로 김포(5개)보다 두



지난 2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24라운드 김포FC와의 경기에서 광주FC 산드로가 공격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배 더 많았다. 유효슈팅 역시 6차례(김포 3)였으나 마지막 결정력이 부족했다.

이날 3-4-3포메이션으로 나선 광주는 산드로, 엄지성, 헤이스가 공격 최전방에 섰

다. 중원에는 두현석, 이순민, 이희균, 이상기가, 수비라인은 안영규, 김재봉, 김현훈이

나섰다.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썼다. 전반부터 광주는 김포 압박에 고전하면서

좀처럼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전반 4분 김포 손석웅과 전반 7분 황도연에게 연속 슈팅

을 허용했지만 실점하지 않았다. 광주도 김포의 골문을 위협하며 반격에

나섰다. 전반 25분 헤이스가 왼발 중거리 슈트, 전반 29분 엄지성이 왼발터닝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수비수의 저항이 거셌다.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친 광주는 후반 7분 헤이스가 골키퍼와의 일대일 찬스를 맞이했으나 이상욱의 선방에 걸렸다.

광주는 또 한 번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산드로가 후반 17분 방향을 바꾸는 절묘한 터닝 슈트를 날렸으나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 19분 헤이스가 박스 왼쪽에서 중앙의 마이키에게 패스를 전달했다. 그러나 마이키의 왼발 슈팅은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다.

광주는 후반 27분 박준강, 아론을, 후반 35분에는 김종우를 투입시키며 공세를 강화했다.

광주는 후반 추가시간 2분 정호연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결승골을 노렸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이어 김종우의 패스를 받은 산드로가 곧바로 슈팅을 날렸으나 골문 오른쪽을 빗나갔고 결국 0-0 균형을 깨지 못했다. 2위 대전(승점 38·10승8무4패)과는 승점 9점차가 됐다.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광주에 합류, 이날 데뷔전을 치른 산드로는 공격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으나 인상깊은 활약을 펼쳤다. 이날 산드로는 슈팅 3개 중 유효슈팅 2개를 기록했다.

광주는 5일 오후 7시 부천FC와 홈경기를 갖는다. /조혜원 기자



임진희가 3일 강원도 평창 버치힐CC에서 열린 '맥클-모나파크 with SBS Golf' 파이널 라운드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LPGA 제공

임진희, KLPGA 맥클·모나파크오픈 우승

신인 윤이나 2위

임진희(24)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맥클·모나파크오픈(총상금 8억원)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임진희는 3일 강원도 평창군 버치힐 골프클럽(파72·6,43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한 임진희는 '신인' 윤이나(19)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6월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 이후 1년 1개월 만에 투어 2승째를 따낸 임진희는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받았다.

1라운드 공동 선두에 이어 전날 2라운드에서 2위에 2타 차 단독 1위로 올라선 임진희는 마지막 날까지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임진희는 1번 홀(파4) 버디로 기분 좋게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고, 2위였던 윤이나가 3번 홀(파5)에서 티샷이 왼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실수 때문에 2타를 잃어 비교적 여유 있게 1위를 지켰다.

한때 4타 차 선두를 달린 임진희는 15, 16번 홀에서 연속 보기가 나오며 잠시 흔들렸다. /연합뉴스

반면 윤이나는 9~12번 홀에서 4연속 버디를 잡으며 반격에 나섰다. 윤이나가 17번 홀(파3)에서 약 10m 버디 퍼트를 넣으면서는 1위와 격차가 2타로 좁혀졌다.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윤이나는 250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리며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임진희가 70m를 남기고 친 세 번째 샷을 홀 1m도 안 되는 곳으로 보내 승기를 잡았다.

윤이나가 7.2m 거리에서 시도한 이글 퍼트도 약간 짧아 결국 마지막 홀을 임진희와 윤이나가 모두 버디로 비겼다.

임진희는 "작년 첫 승 때는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이번 우승은 제가 하나하나 쌓아 올려 만든 느낌"이라며 "이 대회 이후 자신감도 올라갈 것 같고, 목표인 상금 7억원에 시즌 2승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KLPGA 무대에 데뷔한 윤이나는 첫 우승은 다음으로 미뤄지만 이번 시즌 드라이브샷 비거리 1위(264.4야드)의 장타를 앞세운 호쾌한 경기력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은우(27)와 최민경(29)이 6언더파 210타로 공동 3위, 신인 이예원(19)은 5언더파 211타 단독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KIA 초대형 악재...소크라테스 부상 이탈

외야수 김호령 등록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30)의 부상이탈로 타격지표에 먹구름이 겹쳤다.

소크라테스는 지난 2일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SSG와의 경기에서 김광현의 시속 145km 직구에 얼굴을 맞아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동해 CT촬영 등 정밀검진을 한 결과 코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아 3주 이상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KIA는 소크라테스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대신 외야수 김호령을 등록했다.

3일 광주 조선대 병원으로 이송된 소크라테스는 1주일 동안 부기를 뺀 뒤 다음 주 중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 후에는 2~4주 동안 회복 기간이 예상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빨라야 8월 초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KIA는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이탈하는 악재를 맞았다. 놀린 종아리 근육파열



소크라테스

로 이탈했고 퇴출된 로니는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소크라테스까지 부상을 입었다.

소크라테스는 한때 퇴출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5월 완벽하게 반등하며 KIA 타선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시즌 초반인 4

월까지만 해도 타율 0.227로 부진했으나 5월 월간 타율 0.415를 기록하고 KBO최우수선수(MVP)까지 수상하며 KIA의 중심 타자로 거듭났다. 6월에도 타율 0.344, 5홈런을 기록하며 꾸준한 타격감을 유지했다. /조혜원 기자

광양여고 오늘 여왕기 여자축구 우승 다툼

현대고 6-2 완파 결승 진출

포항여전고와 결승 맞대결

광양여고와 광영중이 제30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고등부와 중등부 결승에 올라 나란히 왕좌에 도전한다.

광양여고는 지난 2일 강원도 삼척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준결승에서 울산 현대고를 6-2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경기는 압도적이었다. 광양여고는 전반 12분 황다영, 18분 조혜영이 연속 골을 터트리며 리드를 잡았다. 전반 22분 울산 원채은에 실점했으나 전반 종료 직전인 37분

정다빈의 득점이 터지며 3-1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에도 3골을 더 터트렸다. 후반 13분 김수연의 골로 4-1을 만든 광양여고는 5분 뒤 울산 임아리에 골을 내줬으나 실점은 여기까지였다. 후반 34분과 38분 최한빈이 연속골을 터트리며 결승행 추풍을 쏘아올렸다.

광양여고는 4일 오후 4시 예성여고를 5-1로 꺾고 올라온 포항여전고와 우승다툼을 벌인다. 광양여고는 예선 4조에서 인터넛고를 3-2, 디자인고를 5-0으로 꺾어 2승으로 조1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8강에서 충남 인터넛고를 4-2로 꺾은뒤 울산 현대고와 준결승을 치렀다.

여중부에서는 광영중이 우승에 도전한다. 광영중은 3일 열린 충남 강경여중과의 준결승에서 4-2로 승리했다.

전반을 득점없이 마친 광영중은 후반 범예주의 연속골로 리드를 잡았다.

범예주는 후반 25분과 23분 연속골을 터트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후반 36분 강경여중 지애에게 실점해 2-1이 됐으나 경기 종료 직전 김효원과 안수정이 득점에 성공했다. 강경여중은 지애의 추가골이 나왔으나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광영중은 예선 2조에서 설봉중을 3-1로, 노원U15W를 6-2로 꺾어 2승으로 조1위를 한뒤 지난 2일 충북 예성여중과의 8강전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광영중은 5일 오전 11시 경기 설봉중과 결승전을 갖는다. /최진희 기자

타이거우즈, 1개월 반만 대회 출전

아일랜드 프로암 오늘밤 개막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가 한 달 만에 팬들 앞에 나선다.

우즈가 출전하는 JP 맥매너스 프로암이

4일부터 이틀간 아일랜드 리머릭의 어데어 매너 골프 코스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비공식 이벤트지만 우즈가 5월 말 PGA 챔피언십 3라운드를 마친 뒤 기권하고 나서 처음 출전하는 대회라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올해 디오피는 150회째를 맞아 '골프의 성지'로 불리는 세인트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열려 우즈의 의욕이 남다르다.

우즈는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열린 디오피에서 2000년과 2005년에 우승했다.

우즈는 한국 시간으로 4일 밤 10시 5분에 1라운드를 시작한다. /연합뉴스